

탄허스님의 '영가집' 출간

동국대 강의 현대적으로 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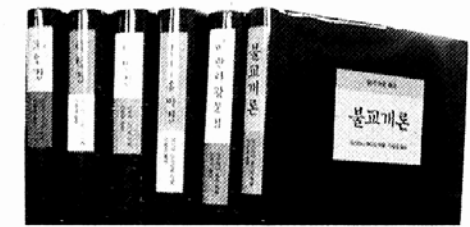


탄허(1913-1983) 스님이 지난 72년 겨울 동국대 대학선원(정각원)에서 동국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가집 특강'이 30여 년 만에 도서출판 교림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포항 운흥사판을 저본으로 하고 있는 이 <영가집>은 탄허 스님이 동국대 강의를 토대로 지난 80년대에 직접 쓴 원고를, 스님의 제자들이 현대인들이 보기 쉽게 풀었고, 목차와 연표도 새롭게 추가했다.

평생 <영가집>을 공부한 전강 스님이 탄허 스님의 동국대 강의를 듣고 "젊은 탄허만큼 공부하지 못했다"며 강의 후에 만나 맞잡을 했다는 짧은 일화는 탄허 스님의 <영가집>강의가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알게 하는 대목이다.

<영가집>은 '선종영가집' 또는 '영가선종집'이라고도 하는데 육조 혜능 스님의 5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영가 현각 스님이 저술한 것으로 선정 수행의 과정을 담고 있다. 값 1만 5천원. 김중근 기자



20년째 사랑받는 불교입문서

현암사 '알기쉬운...' 시리즈 현암사가 지난 76년부터 출간한 '알기 쉬운 불교' 시리즈는 20여 년 가까이 불교입문서의 스테디셀러 자리를 잃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장정과 편집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출판문화에서 독자층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점에서 현암사의 <불교개론> <아함경> <화엄경> <열반경> <반야·유마경> 등 6권의 '알기 쉬운 불교' 시리즈 개정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불교의 기본에서부터 주요경전까지 이해할 수 있는 이 시리즈는 70-80년대의 독자들이 즐겨 읽었던 책이 세대를 이어 요즘의 젊은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업성을 배제할 수 없는 출판시장에서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불황 타개 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값 각권 9천8백원. 김중근 기자

수좌와 여대생의 사랑과 구도

'꿈' 김성동 장편소설



김성동 씨가 새 장편 소설 <꿈> (총작과비평사)을 냈다. 불교소설로는 <만다라>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 소설은 주인공 능현이 고교졸업을 몇 달 앞두고 자퇴한 후 입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10년 가까이 정진하던 능현에게 한 여대생이 나타난다. 명문여대 미대 3학년인 그녀는 젊은 수좌 능현을 문학의 길로 이끈 후 사라진다. 그리고 그녀가 3년 만에 다시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반야는 그의 공양주를 해 준다는 능현을 따라 토굴로 가면서 두 남녀의 달콤한 사랑이 시작된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 것이 이 소설의 즐거이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한 사람 마음이 세상 바꾼다

'평화의 씨앗' 슬락 시바락사 지음

종교는 사회 현실의 문제에 어떻게 간여해야 하는가. 이른바 '침여불교'의 현실적 가능성을 진지하게 실험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오늘의 한국 불교에 든든한 안배의 구실을 해 줄 책이 나왔다. <평화의 씨앗>(정호)이 바로 그 책이다.

지은이는 1933년 태국에서 태어나 사회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는 슬락 시바락사. 사원학교에서 전통교육을 배운 그의 사상은 철저히 불교적이다. 현재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며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불교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는 그는, 세계참여불교연대를 설립하여 불교의 가르침으로 세상 바꾸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NGO운동가다.



호·연기사상 통해 현대사회 문제 재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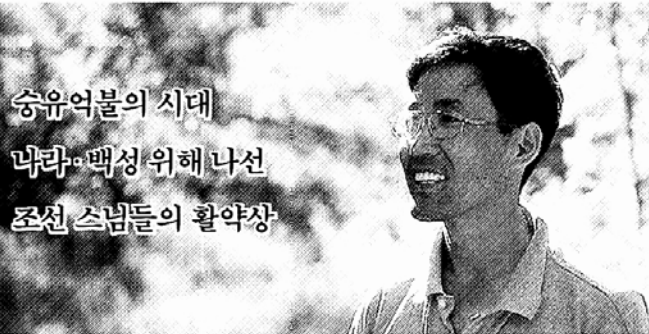
이 책은 지은이가 펼치고 있는 참여 불교운동의 결정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불교적 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바꿔야 하는 이유와 대안을 담고 있다. 그가 말하는 세상 바꾸기의 시작은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랑과 분노 등 다양한 씨앗을 평화의 씨앗으로 바꾸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평화의 씨앗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행복의 씨앗이란 것이 지은이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평화

의 씨앗을 싹틔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지은이는 인간사의 고통과 사회적 부조리의 극복 가능성을 개인적 깨달음과 사회적 변화에서 찾는다. 개인적 차원의 깨달음은 탐욕·분노·어리석음 등 삼독(三毒)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깨달음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해야 한다. 사회변혁이 인간 변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지은이의 이 같은 논리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씨

앗을 틔우느냐에 따라 사회변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 사회변혁 즉 세상의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싹틔운 평화로운 마음의 결집인 셈이다.

지은이는 불교 수행의 기본인 선정 수행을 통해 심성을 개발한다면 탐진치에서 벗어나 보편적 자비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의 고통 해소 방법은 전통불교의 연속 선상에 있다. 따라서 그의 사람 바꾸기 방법이 전제된 세계관은 공(空)과 연기(緣起)의 불교적 세계관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 그의 불교적 세계관이 무조건적 전통 추종은 아니다. 불교를 현대 사회에 맞게 해석하고 실천할 것을 주장한다. 사성제와 팔정도를 비롯해 무아와 열반, 연기, 오계를 현대 사회이론으로 재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불교적 개념들을 개인과 사회의 변혁을 이끄는 지침으로 삼아 세상 바꾸기를 시도한다.

이 책에서 얻는 또 하나의 배움은 지은이가 개발의 광기에 대한 저항의 힘을 자신의 태생적 전통에서부터 끌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불교나 다른 태국에서 서구의 가치에 무작정 빠져들기 보다는 전통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전통과 서구문명의 바람직한 부분을 함께 받아들이는 중도의 길을 지혜롭게 찾고자 하는 지은이의 노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송유억불의 시대 나라·백성 위해 나선 조선 스님들의 활약상

이재운 장편 '당취' 완간

조선 시대 중기 유림들의 극악한 해탈 속에서 불발을 지키려 했던 스님들의 몸부림을 담은 장편 소설 <당취>(명상, 전5권)가 완간됐다. 지은이는 <소설 토정비결>로 널리 알려진 이재운(44) 씨.

"조선시대 중기, 스님들은 특하면 집착가 길을 닦고, 성벽을 쌓고, 관원들의 허드렛일에 동원되었다. 심지어 비구니들은 양반의 노리개로, 첩으로 잡혀갔다. 그런 스님들이

오직 살기 위해 조직한 것이 비밀결사 당취(黨聚)였으며 승병의 근간이 됐다." 지은이는 호법신장으로서 조선 불교를 지켜낸 당취를 소설화한 배경을 이렇게 밝혔다.

이 소설은 조선 중기 임진왜란을 전후로 활약한 승병과 그 배후가 된 '당취'라는 비밀 결사체의 활동상을 그린 작품이다. 송유억불을 통해 이념으로 내세운 조선사회에서 불교는 사대부와 정권에 의해 극심한 탄압을 받는다. 이 때 등장한 것이 당취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

하기 위해 성불을 포기하고 사대부와 관에 응징의 몽둥이를 들게 된다. 하지만 조정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격한 당쟁을 치르고 있었으며 유유부단한 임금(선조)은 궁녀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

이 무렵 오랜 전국 시대를 거쳐 일본을 통일한 풍신수길은 대륙정복의 야욕을 드러낸다. 조선 곳곳에서는 강산을 염탐하기 위한 일본 첩자들이 들어와 관청의 무기고와 대강 집의 안방까지 뒤흔기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깨어 있는 사람들은 당취 뿐이었다. 그들은 토정 이지침이 남긴 비기에 따라 휴정·유정스님의 지휘하에 한눈에 빠진 조선과 중생을 구하기 위해 일어난다.

이 소설은 이러한 당취들의 울분과 활약을 흥미진진하게 그리면서 왕조 창업의 이상을 잃어버린 채 당쟁과 향락으로 얼룩진 조선 중기 사회의 모순과 민초들의 고통을 치열하게 드러낸 역사소설이다. 값 각권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스튜디오 다지읽기

티베트의 지혜

"죽음과 죽음의 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뿐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실제적인 척도를 제공할 것이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 죽음을 평온하게 받아들일수록 도울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지혜> (민음사)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이 책은 티베트 불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파드마 삼바바의 <티베트 사자>를 알기 쉽게 설명한 물론 불교의 가르침을 일반인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따라서 책 속에는 티베트 불교가 인간이 죽은 후 거처가 된다는 바르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죽음과 죽어 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 임사(臨死)체험에 관한 보고, 일상 생활에서 마음을 닦는 수행법이 소개돼 있다. 이외에도 현신적인 삶이 어떻게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어주는지,



현신적인 자세로 살면 평온한 죽음 맞이 美·英 등 23개국 번역

그것이 어떻게 가족들을 비롯하여 사회와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지은이는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 스승으로 꼽히는 소갈 린포체. 그는 어린 시절 티베트의 고승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중국군에 의해 티베트가 붕괴된 후 영국으로 건너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고 1974년부터 일반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해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가르침을 펴고 있다. 그가 지금까지 쓴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미국, 영국 등 23개국에서 번역돼 2백만 부 이상이 팔릴 정도로 세계인들에게 두루 읽히고 있는 <티베트의 지혜>에는 일반인들이 좀처럼 다가서지 못하는 영적인 진리의 세계가 생생하게 펼쳐진다.

우리가 죽음을 미리 준비할 때 일어나는 것과 대비하지 않을 때 따지는 것의 차이를 이 책은 명확하게 제시해 준다. 부처님께서 이미 죽음이란 삶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강조했고, 이러한 생각은 티베트 불교의 핵심 가르침 가운데 하나다.

살아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삶을 통해 죽는 순간에 그리고 죽은 이후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게 이 책의 경고다. 값 2만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책방 역시아름 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의 나침반	현 각	열림원
2	물 따라 흐르는 꽃을 본다	서 응	다름세상
3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다산해운사
4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형 견	북다의마을
5	성철스님과 모교동자	정 찬 주	현대문학
6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림
7	도움에겐 면지는 사자후	서 병 후	화두
8	은 세상은 한송이 꽃	무 심	현암사
9	지장경 강의	무 비	불광
10	금강경 강의	해 거	부디스텔닷컴

도서 안내: (02)737-0695

성하출판 영업부 (02)2273-4452

가족의 우환, 결혼 생활, 사업의 성패, 미래의 전망등 갖가지 인생문제 해답을 이책에서 얻는다!

"살아있는 에너지, 우리 몸엔 氣가 있다"

21세기, 과학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다.

과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4차원의 정신세계 기(氣)'. 질병과 고통 등의 갖가지 인생문제의 해답을

氣 전문가 지선 스님에게서 얻는다. "좋은 기를 받느냐 나쁜 기를 받느냐에 따라 무병장수할 수도 단명병사할 수도 있다.

좋은 기를 얻는 방법만 터득하면 누구나 행복해 질 수 있다.

"인간의 운명은 氣에 따라 바뀐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이다", "노력과 성공은 정비례한다",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등의 좋은 글이 많지만 이것은 인간의 상식적인 선에서의 말씀이고, 4차원의 정신 세계에서 볼 때에는 전혀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우선은 '기'의 영향으로 인간 삶의 행·불행, 인간사의 기쁨과 슬픔이 교차한다고 본다. 쉽게 말하면 모든 즐거움과 슬픔, 기쁨과 고통, 무병장수와 단명병사 등 인간사의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이 '좋은 기'와 '나쁜 기'의 영향으로 그것저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필자는 자신이 전개하는 논리와 현실적 사해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뢰하기만 하면 자신의 환경을 좋은 기로 변형시킴으로써 그 기의 작용으로 행복한 인생의 축진제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현실의 우환과 불행의 골래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자신과 가족들이 밝은 미래의 인생을 보장 받고 싶은 사람, 미래에 큰 삶을 영위하고 싶은 사람, 현재 불행속에 있는 남녀들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책, 평생 일년 열두 달 편안하게 살게 하는 지혜의 그릇이 바로 이 책이다.

기(氣)이는 만큼 행복하다

지선 스님의(氣) 강의 전국 강태

- 한국정신과학회 세미나 (2001년 3월 28일 대전 KAIST 강당)
- MBC-TV 이카데미 출연 (2001년 5월 4일 안동 MBC-TV 방송국)

화제의 신간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당신의 운명을 깨치는 소리

이제는 만만큼 행복하다

氣

성하출판

지자 - 지선 스님 (대구 팔공산 저비스 주지 스님)
 • 신국판 · 276페이지 정가 9,000원
 • 책속 부록 : 기적을 일컫는 지선스님의 신비의 달미도